

다산포럼

‘인권의 날’에 생각나는 두 가지



김정남 언론인

“사형이 구형되었다. ... 김병곤의 죄수 진술이 시작되었다. 첫마디가 ‘영광입니다’ 아예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사형을 구형받자마자 ‘영광입니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는 엄청난 충격 속에 휘말려 들기 시작했다. 죽인다는데, 죽는 다는데, 일체의 것이 총말이라는데, 꽃도 바람도, 눈매 서늘한 작은 연인도, 아예 뽀 놀 가늠히 타는 저 산마울의 푸르스름한 저녁연기의 아름다움도, 늙으신 어머니의 주름살 많은 저 인자한 얼굴 모습도, 흠에 거칠어진 아버지의 저 마디 굵은 두 손의 혼 혼함도, 일체가, 모든 것이 갑자기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데...”

사형제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1975년 2월 말, 이제 막 석방된 김지하가 동아일보에 쓴 ‘고행-1974’의 앞부분으로, 1974년 7월 9일 오전 열린 비상군법회의에서 이철, 여정남, 유인태, 나병식, 김병곤, 유근일, 이현배 등과 함께 사형구형을 받을 때의 한 장면을 묘사한 내

용이다. 그때 죽음은 이들에게 그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사형 구형은 단지 업포만이 아니었다. 광기 어린 박정희 유신정권이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르지 모르는 시절이었다. 실제로 이들의 배후로 몰려 이들과 함께 구속되었던 인혁당계견위 사건 관련자 8명은 1975년 4월 9일 새벽에, 대법원 판결이 난 지 채 24시간도 되기 전에 처형되었던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 무렵부터 나는 사람이 사람을 범이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형식상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법의 이름을 빌려 정치적 반대자를 죽이는 일을 나는 그 이전에, 그 이후에도 수없이 지켜봐야 했다. 설사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죽더라도 돌릴 수 없는 형벌로서의 사형제가 과연 생명과 천지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재판 받은 강력 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른다 고 한다. 3심까지 가셔도 끝내 오심이 밝혀지지 않아 사형을 당한다면 그것은 필경 억울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제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세계 198개 국가 중 사형 폐지국과 10년 이상 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은 141개국에 이른다 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 집행을 중단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강력 사건만

나오면 사형 집행 요구가 터져 나와 그때마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국회에서도 사형 제도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자동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민청학련 사건에서 사형의 문 앞에서 있었던 유인태 전 의원이 사형 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는 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할 도덕적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믿는다. 그렇다.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고문도 근절되어야 한다

197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명동성당에서는 ‘인권 회복을 위해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여기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우리의 인권 주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종길 교수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문치사되었다. 많은 사람의 증언과 해외 언론의 보도가 이를 말발잡고 있다. ... 인권 유린의 수부(首府) 중앙정보부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이어서 18일에는 ‘최종길 교수와 떠난 모든 형제들을 위한 추모미사’를 올렸는데, 오태순 신부는 추모사에서 “1973년 10월, 불의와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분노가 학원에서 폭발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당신의 제자들인 학생들을 연행, 구속했습니다. ... 더 이상 잠을 수 없었던 당신께서는 교수회의에서 정보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 당신의 자살은 날조된 것입니다. ... 이제사 우

리는 다 같이 모여 통곡으로 당신을 추모합니다”라고 했다. 나는 그때의 벽찬 감동과 흥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것은 말 씀의 폭풍이었고, 암흑 속의 햇빛이었다.

이 같은 일은 당시로서는 오직 사제단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모험이요 용기였다. 40여 년에 걸친 끈질긴 투쟁 끝에, 최종길 교수의 명에는 회복되고, 자살이 아닌 것만은 밝혀졌지만, 어떻게 죽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고문한 자는 살아 있지만 입을 열지 않는다. 산 자여,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고문은 근절되어야 한다.

그의 30주기가 되는 날이었던 2003년 10월 18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 최종길 교수 기념홀(소강당)이 만들어졌다. 그 입구에는 최종길 교수의 얼굴 부조와 함께 명(銘)이 새겨졌는데, 외양되게도 그 글은 내가 썼다. 그것이 지금도 잘 있는지 궁금하다.

“최종길 교수(1931~73)는 이 대학에서 법과 정의를 가르쳤다. 그는 학문으로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학자요 선지자였으며, 내 몸을 던져 제자를 사랑했던 참 스승이었다. 말을 보고 해라고 말해야 했던 시대, 그는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다가 불의한 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그는 진실 없이는 정의 없고 정의 없이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그의 온 생명을 들어 증거하였다. 이 방에 들어오는 이는 누구나 이런 질문을 받고 있다. ‘오늘 당신은 이 땅의 인권과 정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청춘 특·특

나는 청년 상인이다



서재한 목포 청춘향 청년상인

주변 어른들이 지나가며 꼭 한마디씩 던지고 가신다. “아빠, 젊어서 좋네!” 맞다. 나는 청년 상인이다. 어릴 때 나는 마냥 착한 아이였던 것 같다.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정해져 있는 보지 않는 ‘물’을 어기지 않으며 ‘그냥 그렇게’ 학생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른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는데, 정작 견본은 더 좁아지고 있었다. 직접 부딪히고 경험해보는 일은 적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나이에 조금 더 들어서야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일까. 그때부터 ‘경험’이라는 것

에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직접 경험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모두 소중하고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라 믿었다. 타치는 대로 다 경험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 나섰다. 우리가 말하는 ‘힘든 일’이라는 것도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배달도 해보고 막노동도 뛰었다. 나중엔 뱃일까지 해보게 됐다.

뱃일을 하면서 웬만해서 붓는 일이 없던 내 손목이 자주 부어 올랐다. 힘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그랬다. 손에 쥐는 일을 많이 하면서 나중엔 맨주먹을 쥐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힘이 빠졌기도 했으나, 바닷물과 바람에 손이 통통 부어서 더 그랬다.

겨울 바다가 내뿜는 한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실감하기 어렵다. 워낙 차고 강하게 불어치는 탓에 매번 흐르는 콧물을 닦기조차 버겁다. 장갑을 낀 채 코를 닦으면 바닷물이 묻어서 코뭉이 다 떨어버리게 일쑤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에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초코파이

도 하루에 3개씩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고 말하는 뱃일마저 하고 나니 세상 모든 일들과 비교가 됐다. 그 이후로는 뭘 해도 ‘그래 뱃일보단 낫지’ 하며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게 됐다. 거북이처럼 묵묵히 뛰든 열심히 헤가면서도 ‘또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안주하던 찰나에 전남도의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만나게 됐다. 직접 만들어보자는 결심이 섰다. 그래서 창업에 도전했다. 메뉴 개발부터 점포 공사까지 모두 직접 다 했다. 그동안 경험들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더해지지 못할 수가 없었다.

창업 아이템은 술안주로 빼놓을 수 없는 ‘달걀’이다. 어느 날 달걀을 시켜먹었는데 배가 아팠다. 그 이유로 궁금해 알아보니 매운맛을 내기 위해 조리과정에서 캡사이신을 많이 첨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캡사이신을 쓰지 않고 충분히 맛있게 배운 달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연구에 들어갔다. 난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가며 결국 불 맛과 함께 맛있게, 캡사이신

이 없이도 맛있는 매운 달걀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점포 공사를 하면서는 뇌리에 있던 생각들이 눈 앞에서 직접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굉장한 설렘을 느꼈다. 하나를 잘 더하면 열 개를 더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자기’에 도 한껏 들었지만 부담감도 더 해졌다. 하지만, ‘잘못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좀 더 고생하면 되니까, 그 모든 게 경험이 되니까’는 생각으로 하나씩 쌓아왔다.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아무래도 정사는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막상 시작하니 음식의 맛부터 재료 관리, 유통 기한, 세금, 월세, 재고 관리, 서비스, 홍보 마케팅까지 가계를 운영하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래도 난 항상 해오던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거고, 고객을 하며 지내고 있다. 서비스에, 시골에, 맛에 만족하는 손님들이 몰려오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여기 제가 직접 만든 곳이니깐요.”

기 고

호랑이를 고양이로 그리지 마라



조계현 4·19혁명 국가유공자

광주 3·15 의거는 4·19 혁명으로 이어진 광복 이래 최초로 성공한 시민 항쟁으로 그의의는 국가적 대표성을 갖는다. 그동안 정부(광주)에 광주 3·15의거의 의의와 위상을 환기해온 이우다. 아울러 금남로공원을 3·15공원으로 명명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광주의 3·15 의거가 역사의 중심에 자랑스럽게 우뚝 선 유일한 사건이고, 금남로 공원 앞이 광주 3·15의거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2010년 4·19혁명 50주년 기념으로 현재 금남로 공원에 세워진 4·19혁명 발원지표석 건립을 기획할 때는 3·15 의거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 전이다. 그런데 3·15 의거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도 마산 3·15 의거에 앞선 광주의

3·15 의거가 마산의 3·15에 가려지고 정부가 외면한 것은 그 현장, 광주에서 스스로 역사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크다.

광주에서 ‘3·15 의거’가 망각된 것은 3·15 의거와 4·19혁명이 함께 일어난 유일한 것으로 3·15 의거가 4·19혁명으로 통칭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다. 2010년 정부가 3·15 의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을 계기로 광주 3·15 의거 조명의 당위성이 부각되어 정부와 광주시의 역할을 호남 4·19혁명 총연합회가 대신한다 올해 들어서야 광주시가 기념식을 주관하게 되었다.

금남로 공원의 명칭을 ‘3·15 공원’이냐, ‘4·19 공원’으로 하느냐의 논쟁(경합)은 광주의 3·15 의거가 4·19혁명의 첫 봉화로 4·19혁명의 시원지(始原地)임을 선양할 것인가, 아니면 4·19혁명의 3대 권역(역사-부산-광주)의 한 곳을 강조할 것인가로 명분과 위상으로 나눠 판단하면 될 것이다.

또한, 헌법 전문에 4·19로 기록되었으니 4·19 공원으로 하면서 광주의 3·15 의거를 표지석에 명기하자는 주장은 국가적 차원의 의의와 고유성을 갖는 광주 3·15의거를 가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간과

한 소탐대실론이다.

광주에 4·19를 상징하는 기념비 등이 타지역에 비하여 빈약하지만, 광주공원에 4·19 추모비와 문화관, 광주교교에 4·19혁명체험관(역사관), 무등로에 4·19혁명기념관 외에 가로명(街路名)에 ‘4·19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4·19혁명의 시원인 광주 3·15의거를 기리는 기념물 등은 어디에도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광주 3·15 의거의 피와 혼이 서려있는 유지(遺址)에 3·15 의거를 명명하는 데에 이견(異見)을 제기함은 유감스럽다.

광주는 3·15 의거와 4·19 혁명이 병존(並存)한 유일한 곳으로 금남공원의 ‘3·15의거(기념)공원’으로의 명명은 광주 4·19혁명의 무게를 더 하게 할 것이다. 또한 금남로가 민주광장이 된 것은 3·15 의거로부터이기 때문에 4·19혁명, 5·18민주항쟁, 6월 항쟁, 촛불혁명에 이르는 시민광장으로 각인된 금남로 공원의 이름을 3·15의거 기념공원으로 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4·19혁명은 3·15 의거의 연장이며 완성으로 3·15의거와 4·19혁명은 단 일사건이지만 그 계기와 시공(時空)의 다른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제2조)

社說

아직도 대형 공사 부실 설계·시공 많다니

광주 지역 대형 공사장의 관리가 아직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일선 지차구가 올해 준공한 공사비 2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 현장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벌인 결과, 12건을 적발해 과다 지급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안전 규정이 강화된 데다 지난해부터 지진 피해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안전 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건설 현장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예산 낭비도 여전했다.

적발된 사항들을 보면 불법 설계 변경은 기본이고 공사비 과다 계상, 각종 시공 규정 위반 및 공사 소홀, 감리 업무 태만 등 감사 때마다 나왔던 내용이 있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대부분 크고 작은 부실시공과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

동구 충장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는 애초 설계에도 없는 원형 거푸집이 설계내역서에 허위로 작성돼 공사비가 부풀려졌으며, 미관 조성을 위한 조경수 70그루는 심지어 없었다. 감사위원회는 부당 지급한 공사비 4400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설계도서 부실작성, 펜스 설치 부당 시공 등 무더기 지적을 받은 데다 준공 2개월 만에 지면석출 잔디 불룩을 철거하고 점토 불룩으로 재시공해 14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밖에 잔디 식재량 과다 설계, 전기 공사비 과다 계상, 엉터리 수목 하자 보수 등 여러 부분에서 공사비가 부풀려진 사항이 적발됐다.

광주시는 대형 공사 현장에 대한 시공 감사 횟수를 늘리고,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로사회 탈출 ‘주 35시간 근무’ 신선힌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 시간이 길다. 연평균 무려 2069시간으로 35개 회원국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 시간이나 더 많다. 이마저도 과소 보고된 것이라는 한국인의 실제 연평균 노동 시간은 2241시간이라는 것이다. 이를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63시간)에 비해 878시간 즉 110일이나 더 오래 노동을 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 그룹이 내년 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일부 중소기업이 부분적 주 4일 근무제 등을 통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는 있으나 세계 10위권의 대기업이 법정 근로 시간(주 40시간) 이하로 모든 임직원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35시간이라면 법정 시간보다 5시간 적다. 그것도 임금 삭감 없이 그리하겠다는 나쁜 것은 한국의 노동 현실

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일단 쉼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신체 계 측이 밝힌 ‘주 35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휴식 있는 삶을 제공하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되 업무의 성격에 따라 1시간 일찍 또는 늦게 출퇴근하도록 하는 등 근무 시간 또한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버티 내기 어렵다. 지금처럼 노동 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고용 절벽, 저출산, 여성 경력 단절 등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세계가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사업장마다 업무의 성격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으로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가 탄생한 종교의 성지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도시다.

다윗왕 때는 전체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시에 예루살렘은 둘로 나뉘어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어,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통치해 오고 있다.

1980년 7월30일 이스라엘 국회가 예루살렘 전체를 ‘분리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역사·종교적 민감성 때문에 그동안 미국을 포함한 각국은 텔아비브에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로 텔아비브를 꼽기도 한다.

그런데 이 ‘중동의 화약고’ 예루살렘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할 때’라며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부터다.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등 예전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이스라엘 사이에서 로켓포와 전투기가 동원된 교전으로 확산, 10일까지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

망하고 1000여 명이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 미국 백악관 주변은 물론 유럽이나 아프리카 곳곳에서도 반미·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아랍연맹 외무장관들도 미국의 결정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협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부디 한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이 민족·종교 간 전면전으로 이어져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불행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지경 서울취재본부 부장 jkpark@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